

마리우폴 간 푸틴 히틀러와 닮은꼴?

“80년전 흑백사진과 판박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점령지
러시아 침략에 또 다시 고통
우크라 “어떻게 끝났는지 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한 것을 두고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행보를 연상케 한다는 풍자가 온라인에서 퍼졌다.

19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 안톤 헤라셴코는 이날 트위터에 한 흑백 사진과 함께 “또 다른 독재자도 마리우폴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가 어떤 끝을 맺었는지 알고 있다”고 올렸다.

게시된 사진에는 히틀러가 군인들을 대동하고 기지를 시찰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마리우폴에서의 총통(Der Führer)’이라는 설명과 함께 날짜도 적혀 있다.

전쟁사 웹사이트 위키스트리온라인에 따르면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12월 히틀러가 동부 전선 마리우폴의 야미 그룹사우스(Army Group South) 사령부를 방문한 당시 촬영됐다.

마리우폴은 1941~1943년 나치의 구소련 점령 시기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졌다. 당시 나치의 침공으로 소련군과 민간인 2천만명

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쟁에서도 마리우폴은 남부에서 가장 참혹한 범죄가 저질러진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작년 3월에는 러시아군의 극장 폭격으로 최소 600명이 숨졌다.

이후 이 흑백사진은 푸틴의 이번 마리우폴 방문 사진과 함께 편집돼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하르키우인권보호단체도 홈페이지에 같은 사진을 올려 “두 방문 모두 정치선전을 위해 이뤄졌다”며 “푸틴은 러시아가 야기한 파괴와 고통의 이미지들이 우연히 포착되는 것을 막고자 한밤중에 시찰했다”고 지적했다. 마리우폴 망명 시의회도 텔레그램에 히틀러와 푸틴의 사진을 올리며 “같은 같다-침략자의 패배”라는 설명을 달았다.

작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의 대표 올렉산드라 마트비추크 역시 트위터에 히틀러와 푸틴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어쩔 수 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핀란드 정보국장으로 일했던 현 국방부 고문은 트위터에 폐허가 된 마리우폴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마리우폴을 구했다’고 말하는 러시아군을 묘사한 만평을 올리며 히틀러의 사진을 비교용으로 썼다.

뉴스위크는 “나치의 마리우폴 점령 당시부터 80년이 흘렀지만, 작년 푸틴의 침공으로 도시는 다시 전쟁을 겪어야 했으며 주민 수천 명의 식량과 식수 등이 끊겼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체포설’ 트럼프 자택 밖에 모여드는 지지자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검찰이 오는 21일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행동을 촉구한 다음 날인 19일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자택 밖에 모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와의 과거 성관계 사실을 숨기려고 회삿돈으로 합의금을 지불한 뒤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중-러-이란 삼각 밀착...미국엔 ‘빌런의 축’ 되나”

미 전문가...“미, ‘악당 무리’ 고심”

최근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미국을 대적적으로 삼각 편대를 형성하며 밀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플레처대 교수이자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인 대니얼 드렌즈너는 19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미국은 새로운 리전 오브 돔(Legion of Doom)을 만들려 하는가”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협력 관계는 어느 때보다 공고해지고 있다. 세 나라가 이렇게 뭉친 것은 ‘공통의 적’ 미국과 대립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를 받고 있

기 때문이다.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성한 안보 협력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을 코앞에 두고 있고,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복원을 중재했다.

엔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대량 공급하는 등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이들 세 국가와 대립각을 세울 이유는 충분하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

크라이나를 침공해 유럽에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을 일으켰다.

중국도 세계 무역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독재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하며 중동의 미국 동맹들을 위협하고 있다.

리전 오브 돔은 미국 ‘DC 코믹스’에 등장하는 악당 무리로, 슈퍼맨 등 ‘저스티스 리그’와 대립하는 ‘빌런’ 캐릭터들을 말한다.

드렌즈너 교수는 이런 상황은 미국이 모든 적을 하나의 바구니에 넣고 생각하는 편견을 되풀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일본 국민 65% “한일 정상회담 긍정 평가”

한국 징용 해법 발표도 긍정

일본 국민 3명 중 2명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7~19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1천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24%에 그쳤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도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인 평가는 31%에 머물렀다.

향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

는다”가 61%로 가장 응답 비중이 높았고, 이어 “좋아진다”(32%), “나빠진다”(4%) 순이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8~19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1천304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3%로 부정적인 평가(21%)를 크게 웃돌았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 징용 해결책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55%였고, 부정적인 평가는 28%에 그쳤다.

향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57%),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다”(37%), “나쁜 방향으로 진행된다”(3%) 순으로 답변 비중이 높았다. /연합뉴스



호주 트랜스젠더 권리 증진 지지자들
트랜스젠더 권리 증진 지지자들이 18일(현지시간)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국회의사당 밖에서 혐오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방해하는 ‘네오나치’에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 한미일에 협력틀 창설 제안”

교도통신 “중·북 위협 대응”

캐나다가 한국, 미국, 일본에 새로운 4개국 협력틀의 창설을 제안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새 협력틀 제안은 한태평양 지역 민주주의 진영의 협력을 강화해 권위주의적인 중국과 러시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에 대항하자는 취지다.

캐나다는 지난 1월 자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이런 구상을 타진했었고, 일본 정부는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